



8 중문천 학술 탐사

중문천 일대의 선사유적과 유물

김종찬 · 오연숙
제주대학교박물관 · 국립제주박물관

I. 들어가며

중문천은 녹하지악에서 베릿내 포구(성천포)로 이어지는 서귀포시의 주요 하천으로 하천은 물론 주변 일대가 수려한 풍광과 다양한 식물상이 자생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하천 하류 역에는 제주도에서 드물게 영구유수천이 자리하고 있고, 베릿내 포구가 자리한 일대는 담수와 해수가 교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어족자원이 서식하고 있다.

중문천 주변의 지세는 계곡을 따라 동서 양편에 비교적 넓은 평탄면이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컨벤션센터가 자리한 곳은 과거 벼농사를 경작할 정도로 넓은 평원과 양질의 토양이 퇴적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중문천 일대에는 주변 화순리, 예래동, 강정동과 더불어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삶의 터전으로 이용되어진 선사시대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중문천 일대의 선사유적은 색달동유물산포지 2지구, 중문동유물산포지 1·2지구(제주 중문 베릿내 유적), 색달동 바위그늘유적 1·2호, 중문동 바위그늘유적, 색달동 고인돌, 중문동 고인돌이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중문천 조사에서는 상기의 유적 외에 새로운 유물산포지와 동굴·바위그늘유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 확인된 유물산포지는 색달동 고인돌이 자리한 곳에서 서편 색달동 민가가 들어선 곳으로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초창기와 탐라시대 전기의 유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굴·바위그늘유적은 기존 색달동바위그늘집자리 1호를 포함한 주변 일대와 중문2교가 자리한 동편 하천 단애면 ‘상여래’가 자리한 곳이다. 특히 이 동굴·바위그늘유적은 현재까지 서귀포시 일대에서 확인된 바위그늘유적들에 비해 비교적 대형에 속하며, 유적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존 임시거처, 창고, 제의장소 등과는 다른 유적으로 평가된다. 유적에서 탐라시대 유물인 적갈색경질토기편과 패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중문천 일대의 선사시대유적은 총 12개소이며, 유적의 형성된 시대는 신석기시대 초창기와 탐라시대 전·후기에 해당한다. 신석기시대 이후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중문천에서 멀지않은 대포천 하류역에 위치한 오등이래 유적, 강정천 하류역에 위치한 강정동유적에서 보듯이 중문천 일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넓은 범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청동기, 철기시대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을 중심으로 중문천 일대 선사시대유적과 유물에 대해 시대 순으로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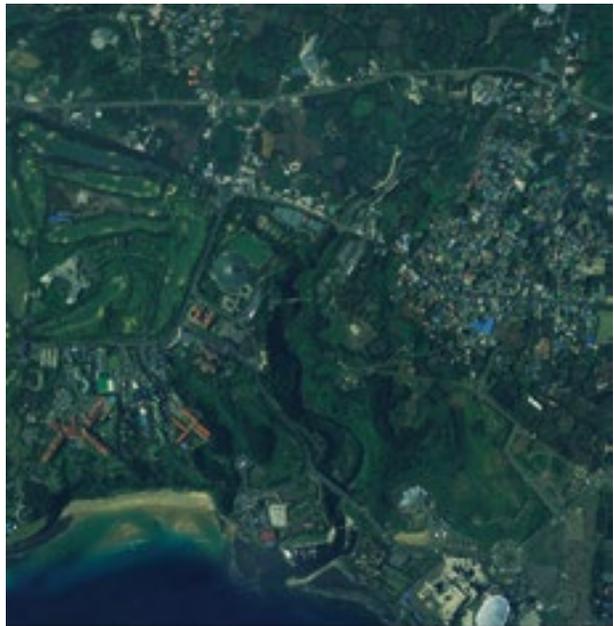


사진 1. 중문천 일대 모습(daum 지도 위성사진 참고)

II. 중문천 일대의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



그림 1. 중문천 일대의 선사유적 분포도

1. 신석기시대

1) 신발견 색달동 유물산포지 1

금번 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유물산포지로서 우선 '신발견 색달동 유물산포지 1'로 명명하였다.

색달동 고인돌이 자리한 서편의 구릉사면에 자리한다. 전체적인 지형은 북에서 남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유물이 확인되는 지점은 비교적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유물은 신석기시대 초창기에 해당하는 '고산리식토기'가 확인된다. 고산리식토기는 한 경면 고산리유적에서 처음 확인되어 명명된 토기로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의 역사를 갖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토기 형태이다.



사진 2. 신발견 색달동 유물산포지 1 전체 모습



사진 3. 유물출토 모습



사진 4. 고산리식 토기(국립제주박물관 참고)

2. 탐라시대

1) 신발견 색달동 유물산포지 2

이번 조사에서 새로이 확인된 유물산포지이다. 유물산포지의 위치는 색달동고인돌이 자리한 서편으로 현 색달마을 민가가 들어선 일대이다. 유물산포지가 자리한 지형은 남에서 북으로 경사를 이루다 현 마을이 자리한 부근을 중심으로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유물산포지의 대부분은 밀감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과 공이석기 등이 확인된다. 유물산포지의 성격은 인근에 위치한 색달동 고인돌과 연관될 수 있는 야외유적으로 판단되며, 시대는 출토유물로 미루어 탐라시대 전기로 추정된다.



사진 5. 신발견 색달동 유물산포지 2 전체 모습



사진 6. 유물출토 모습

2) 신발견 색달동 유물산포지 3

금번 조사에서 새로이 확인된 유물산포지이다. 유적은 중문2교 남쪽 중문천의 서편 2426번지 평탄대지에 위치한다. 중문천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는 상여개가 자리하고 있다.

유물산포지가 자리한 지형적 위치는 서에서 동으로 크게 단을 이루는 계단상의 지형을 보이는 하단이다. 서편의 높은 단애와 동편의 중문천으로 이어지는 단애 사이 평탄면에 위치하여 주변의 외풍과 중문천으로의 출입이 용이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확인되는 유물은 소량의 적갈색경질토기편과 공이석기이다. 신발견 색달동 유물산포지 2와 신발견 중문동 바위그늘유적과 연계되는 유물산포지로 선사시대 색달동 일대 자리하였던 취락의 일부분으로 판단된다.



사진 7. 신발견 색달동 유물산포지 3 전체 모습



사진 8. 유물 출토 모습

3) 색달동 유물산포지 3 지구

유적은 서귀포시 색달동 2950, 3362번지 일대이다. 중문천 하구 단애 상부 서편으로 중문퍼시픽랜드와 그 진입로 북편 저평한 대지상 구릉부분이다. 유물산포지의 범위는 대략 30,000평 정도로 넓은 편이다.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대부분 적갈색경질토기로 주변 예래동유적과 유사한 형태의 토기편이 확인된다. 토기의 대부분은 현무암 알갱이를 태토 보강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연은 외반되어 있다.

유물산포지 남편해안에는 남향의 동굴을 이용한 바위그늘유적 1개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관광위락시설이 대부분 들어선 상태로 전체 유물산포지의 범위가 줄어든 상태이다.



사진 9. 색달동 지구



사진 10. 색달동 유물산포지 3지구 출토유물 모습

4) 중문동 유물산포지 1지구

유적은 서귀포시 중문동 2647번지 일대로 현재 씨에스호텔이 자리한 평탄대지와 그 일대로 유물산포지의 범위는 약 20,000여평에 이른다. 이 곳은 유물의 수습 분포에 따라 다시 3개의 지점으로 나누어진다. 1지점은 씨에스호텔이 자리한

하천과 해안의 접점 부분으로 상부의 흩이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려 형성된 평탄대지와 완만한 경사면 부분이다. 2지점은 하천이 해안에 이르러 폭이 넓어지는데 동쪽편이 하천면과 약간 높은 높이로 약 400여평이 층적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1989년 하천 범람으로 인해 동지점의 토사가 휩쓸려 나감으로써 적갈색경질토기가 지면에서 확인된 바 있다. 3지점은 1지점 뒷편인 해안절벽의 평탄대지로 경작으로 인해 많은 양이 유실되었지만 경작시 모아둔 돌담(작벽)에서 많은 양이 무문토기 및 석기가 섞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확인되는 적갈색경질토기류들은 탐라시대 전기에 사용되었던 것들로, 현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기 전 중문동 유물산포지 2지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마을유적의 일부분으로 판단된다.



사진 11. 중문동 유물산포지 전체 모습



사진 12. 중문 베릿내 유적 발굴조사 모습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참고)

5) 중문동 유물산포지 2지구

유적은 서귀포시 중문동 2673-1번지 일대 중문동 유물산포지 1지구에서 동쪽으로 약 3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중문동유물산포지 1구역과 2구역 사이에는 서에서 동으로 비교적 경사도가 있는 경사면이 자리하고 있다. 이 경사면을 지나 경사면 상부 넓은 평탄대지가 중문동유물산포지 2지구이다.

유물산포지가 형성된 주변 지리적 환경은 높이 20m가량의 해안과 인접한 해안단구상에 위치해 있으며 “지삿개” 주상절리와 해안절벽이 성천포에서 대포리까지 길고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곳의 지형은 해발 25m내외로 비교적 평탄면을 이루고 있으나 조사지역 남서편으로는 급격한 경사면을 이루며 해안과 하천까지 내려가고 있다.

중문동유물산포지 2 지구는 1998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총 3개의 구역으로 세분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발굴조사결과 유적의 퇴적양상은 총4개의 층위가 확인되며, 지표에서 아래로 부식토층(1층), 잔자갈이 포함된 흑갈색점토층(2층), 자갈과 함께 토기편이 포함된 흑갈색점토층(3층), 흑갈색점토층으로 소량의 토기편이 포함된 층(4층), 생토층(5층)이 퇴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유구는 원형수혈유구 3기와 부정형 수혈유구,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원형 수혈유구의 크기는 480×380cm ~ 160×150cm 정도이며, 깊이는 20 ~ 30cm 내외이다. 원형 수혈유구는 유구 내부에서 기둥구멍이 확인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활용이 이루어진 흔적에서 주거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출토유물은 구연이 외반된 적갈색경질토기, 방추차, 어망추, 돌도끼, 흙돌, 공이, 갈돌, 갈판, 숫돌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은 장기간 일정 공간 내에서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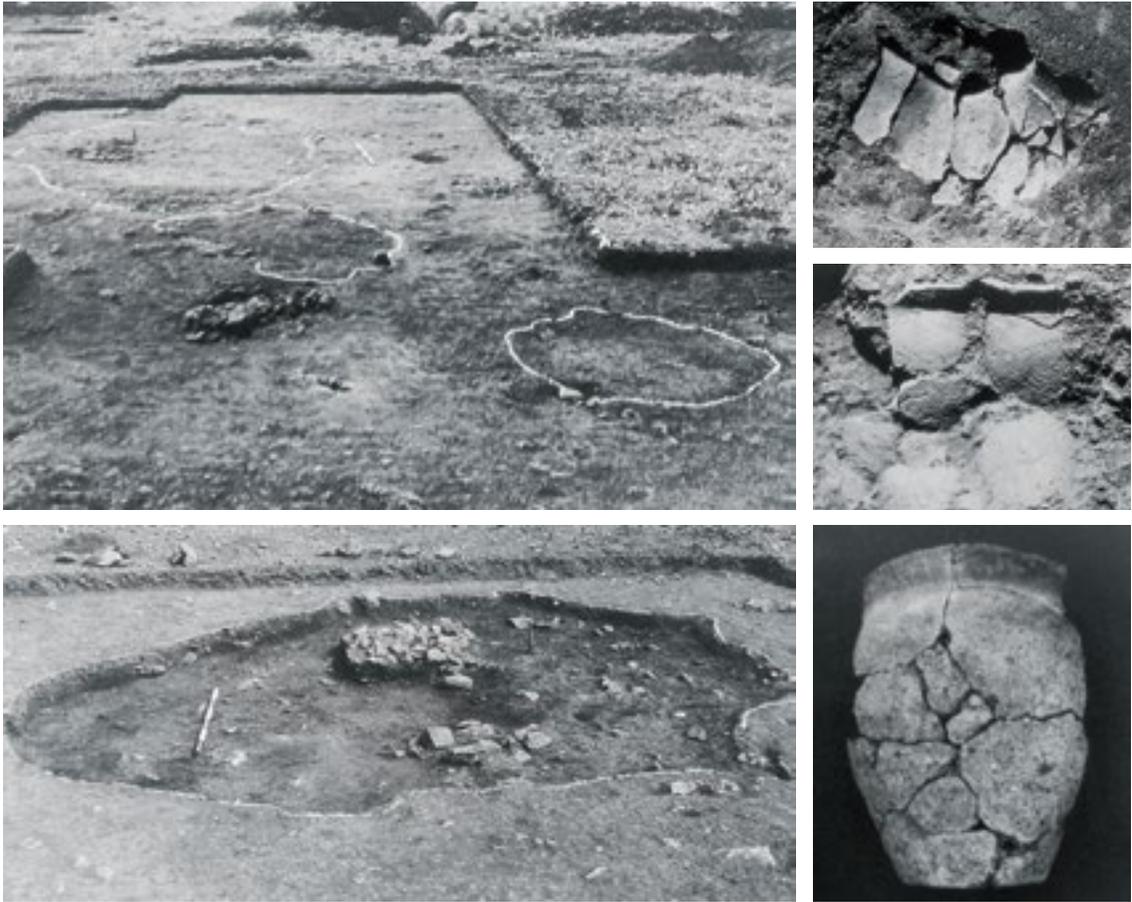


사진 13. 중문 베릿내유적 주거지 및 출토유물 모습

보여주는 유물 조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중문동유물산포지 2지구는 주변 화순리유적, 예래동유적, 강정동유적과 더불어 제주도 철기시대에서 탐라시대 전기 야외취락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6) 색달동 바위그늘유적 1호

유적은 퍼시픽랜드 남쪽 공유 수면에서 3m가량의 해안절벽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의 입구는 남향이며, 입구의 형태는 아치형으로 비교적 출입이 용이한 편이다. 유적의 규모는 높이 1.7m, 안쪽까지의 길이 3.3m 가량이며, 유적의 주변으로는 입구에 대형의 낙반석이 자리하여 해풍을 막아 생활에 유리한 지형을 보인다. 유적의 바닥은 모래와 낙반석, 자갈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 유적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유적의 층위는 50cm가량의 퇴적층에 2개의 층위가 확인되며, 유물은 토기·석기·철기류·패류·동물뼈 등이 확인되고 있다. 유적의 형성시기는

내부에서 고내리식토기편과 회청색경질토기가 확인되어 탐라시대 후기 유적으로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색달동바위그늘유적은 기존 보고된 내용보다 규모와 형태면에서 보다 크고 복잡하며 형성시기 또한 탐라시대 전기까지의 유물이 확인된다.

기존 조사보고에서는 바위그늘이 1개소만이 보고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바위그늘유적(용암동굴)+바위그늘+용암동굴로 이어지는 넓은 범위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유적은 현 퍼시픽랜드의 남쪽 경계, 성천포 요트계류장 서편 해안 단애면에 위치한다. 유적의 형태는 남에서 북쪽으로 유적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체 19.5m의 해안단구 절벽에 아치형의 색달동바위그늘 1호(동굴)을 시작으로 연결되어 중간부 전형적인 바위단애를 이용한 바위그늘과 그늘 앞뜰인 전정부(前庭部), 우측 아치형 용암동굴로 이루어진 동굴과 바위그늘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형태이다.



사진 14. 색달동 바위그늘유적 1호 전체 모습

유적의 퇴적양상은 중간 바위그늘 앞 전정부의 퇴적양상을 통해 상부 표토층, 하부 황갈색사질점토층, 최하부 바다자갈 및 현무암암반층이 순차적으로 퇴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바위그늘이 있는 전정부에서 확인되는데 대부분 굵은 현무암 알갱이를 보강재로 사용한 적갈색경질토기이며, 더불어 소라, 고동류 등의 패류가 확

인된다. 특히 바위그늘 앞 전정부의 존재는 기존 서귀포시 일대에서 확인된 해안 변 바위그늘유적과 상이한 점이다. 대부분 해안 변 바위그늘유적은 소규모로 유적 앞에 전정부가 없으며, 유적 내에서도 소량의 토기편만이 확인될 뿐 장기간 사용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이 유적은 바위그늘이 있는 중간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동굴이 자리하고 있고 전면에는 바위그늘을 이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은 중문천 일대 선사시대 선주민의 생업활동과 주거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의 연대는 기존 조사에서 탐라시대 후기로 비정하고 있으나 금번 조사결과 탐라시대 전 시기에 형성된 유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제주도에서 확인된 해안 변에 입지한 바위그늘유적 중 동굴과 바위그늘을 이용한 복합적인 구조이며, 규모면에서도 넓은 편에 속한다.

유적은 유적의 상단 평탄대지에 위치한 색달동유물산포지 2지구와 하천 건너 자리한 인근 중문 베릿내 유적(탐라시대), 중문동 유물산포지 1·2지구와 더불어 탐라시대 중문천 일대 선사인의 생업활동을 파악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표1. 색달동바위그늘유적 1호 재원표

(단위 : m)

구 분		규 모			출토유물	비 고	
		길이 (입구)	높이	깊이			
좌측	기존 바위그늘(동굴)		5	1.7	3.3	적갈색경질토기, 고내리식토기 등	
중간	바위그늘	소형동굴	3.5	0.8	2.4	적갈색경질토기	기존 바위그늘과 연결됨
		바위그늘	5	2.5	1.8		
		전정부	6	2.8 (너비)	0.3~0.5 (두께)		
우측	동 굴		6	1.6	4.2	바다자갈이 깊게 퇴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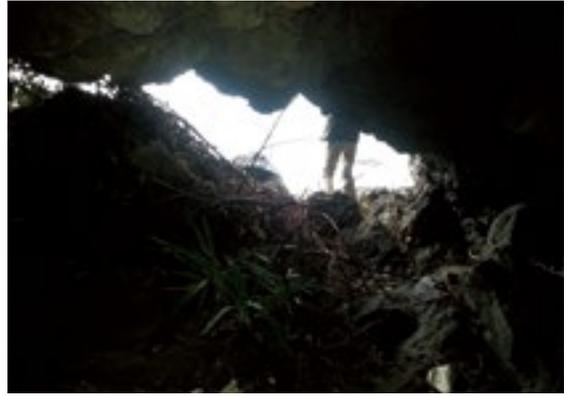


사진 15. 색달동 바위그늘유적 1호 세부모습

7) 색달동 바위그늘유적 2호

유적은 서귀포시 색달동 3381번지 동편 절벽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의 입구는 동향이며, 입구의 크기는 높이 2.8m, 너비 3.8m이다. 입구 그늘에서 내부 안쪽까지는 3.2m 정도이다. 주 생활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2.1m 정도(면적 8m²)로 협소하며 바닥의 상태도 요철이 심한 편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유물은 중앙의 큰 낙반석 틈새에서 외반구연의 적갈색경질토기가 소량 확인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전체적인 유적의 지형적 특성과 출토유물의 양상을 보았을 때 탐라시대 전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유적은 주거지의 기능보다는 유적 상부 대지에 형성된 유물산포지의 야외유적과 연관된 부속 유구로 판단된다.

8) 신발견 중문동 동굴유적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서귀포시 중문동 1396번지 서편, 중문천 단애면에 위치한 '상여래'라 명명된 용암동굴에 형성되어 있다. 유적 맞은편 하천 상단에는 색달동 신발견 유물산포지 3이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하상에서 약 4~5m 상단 하천 단애면에 형성된 용암동굴에 자리하고 있다. 동굴입구의 형태는 단애면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입구가 트인 아치형이다. 동굴 입구 방향은 북서향으로 하천변을 바라보고 있으며, 동굴 입구



사진 16. 신발견 중문동 바위그늘유적 전체 모습

부의 앞은 하천으로 경사져 내려가는 완만한 구릉상의 전정부(前庭部)를 가지고 있다. 동굴의 내부는 일부 깊게 내부로 이어지는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깊지 않은 편이나 단애면 상부에서 지면까지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깊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동굴의 규모는 길이 8.1m, 높이 3.7~4.1m, 깊이 5.8~7.8m이다. 유적은 동굴 전체에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중간부 남쪽에 비교적 깊게 이어지는 동굴의 도입부에 토기편과 패각이 밀집되어 퇴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적의 중간부, 그늘이 끝나는 부분에 천석을 이용하여 타원형으로 돌린 노지 시설이 확인된다. 노지 크기는 장축 90cm, 단축 70cm이며, 내부에는 약간의 재와 목탄이 퇴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7. 신발견 중문동 바위그늘유적 주변 모습



사진 18. 신발견 중문동 바위그늘유적 세부 모습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굵은 현무암알갱이를 태토보강재로 사용한 적갈색경질토기편과 소라, 고동류 등의 패각이 확인된다.

유적의 연대는 확인되는 유물과 인근에 자리한 유적의 형성된 시대를 미루어 볼 때 탐라시대 전기로 판단된다. 특히 유적 전정부에 위치한 타원형의 노지 시설은 현재까지 확



사진 19. 신발견 중문동 바위그늘유적 세부 모습



사진 20. 바위그늘 내부 노지 모습

인된 동굴유적은 물론 바위그늘유적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유구로 유적이 형성될 당시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21. 중문동 바위그늘유적 1호 및 주변 모습

9) 중문동 바위그늘유적

서귀포시 중문동 2631번지 서편 하천절벽, 중문관광단지와 중문 컨벤션센터를 잇는 교각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하천변에 있지만 용암에 의해 형성된 동굴을 이용한 유적으로 입구의 방향은 서향이다. 입구에서 안쪽까지 길이는 2.2m, 그늘의 최대 높이는 1.5m, 최대 너비는 1.8m 정도이다. 생활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2.0m의 채광이 이루어지는 부분까지이다.

유적의 입지와 주변 유적과의 관계를 유추하면, 색달동바위그늘 2호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유적의 상부 평탄대지상도 중문동 유물산포지 1지점이 자리하고 있어 색달동바위그늘 2호의 기능과 유사한 성격의 유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기존 바위그늘유적으로 명명되었으나, 유적의 형태면서 동굴유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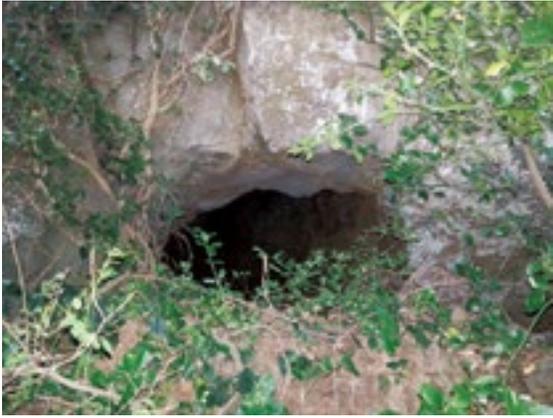


사진 22. 중문동 바위그늘유적 1호 세부 모습

10) 색달동 고인돌

유적은 서귀포시 색달동 1741번지 앞 공터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의 지리적 위치는 색달동 마을에서 중산간도로인 국도 16번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500미터 가량 되는 도로남쪽 연변에 있다. 도로공사 과정에 고인돌 주위를 깎아 내림으로써 도로 높이 보다 1m 정도 높은 지형을 갖게 되었다.

고인돌 상석의 규모는 길이 315cm, 너비 275cm, 두께 35~75cm이며 장축은 남북방향이다. 지석은 한쪽이 2중고임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한쪽은 한 개의 지석으로 상석을 받치



사진 23. 색달동 고인돌 모습

고 있다. 상석의 들림 방향은 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반대쪽은 작은 현무암 할석들로 메워져 있다. 도로공사 이전 전체적인 고인돌의 전체 형태는 상석을 중심으로 주위에 현무암 할석을 이용한 묘역과 묘역 중앙부에 묘역을 안치한 형태로 판단된다. 이러한 형태는 예래동, 신례리 고인돌과 유사한 형태로 서귀포시에서 확인되는 고인돌 양상과 동일하다. 고인돌 주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진 24. 색달동 고인돌 모습

11) 중문동 고인돌군

(1) 고인돌 1호

유적은 서귀포시 중문동 2296번지 일대 컨벤션센터 북편 베릿내오름 동편자락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상석의 크기는 190cm, 너비 190cm, 두께 60~100cm이며, 장축의 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상석 서쪽 끝에 수직으로 다듬은 치석흔이 있으며, 상석 아래에는 상석의 서쪽 모서리에 지석 1개소가 확인된다.

(2) 고인돌 2호

유적은 1호 지석묘와 오솔길을 가운데 두고 15m정도 아래에 위치해 있다. 장축 방향은 동서방향이며, 상석의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200cm, 두께 20 ~ 60cm이다. 상석의 형태는 대체로 평평한 상태이나 상석의 서북편이 움푹 들어갔으며 북쪽 단이 수직으로 치석되었다. 상석의 서쪽이 약간 들려 있으며 지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고인돌 3호

유적은 고인돌 2호 바로 남편에 위치해 있다. 장축의 방향은 동서방향이며, 규모는 장축 길이 280cm, 너비 210cm이다. 상석은 각 단면이 양호하게 치석되었다.



사진 25. 중문동 고인돌 1호 모습



사진 26. 중문동 고인돌 2호 모습



사진 27. 중문동 고인돌 3호 모습

Ⅲ. 나가며

이상으로 중문천에서 확인된 유적과 유물,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유물산포지와 바위그늘유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문천변은 제주 남서부지역의 문화 전개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알려졌듯,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 까지 상회하는 초기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어 제주시 삼수천·병문천·광령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 표선면 천미천, 서귀포시 강정천·예레천 등과 함께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유물은 ‘고산리식토기’로 명명된 것으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시원을 보여주는 유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료는 비록 작은 파편으로 발견되었으나 중문천 일대의 역사가 신석기시대 초기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해주며, 인근의 예레천과 강정천 일대의 신석기유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새로운 동굴·바위그늘유적의 발견이다. 동굴·바위그늘유적은 계곡의 하상이나 해안가의 절벽면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덕면 창고천, 중문 예레천,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등 조면암 절리면이나 얇은 용암동굴에서 확인된다. 계곡에 위치하는 동굴·바위그늘유적은 하천의 음용수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 채집에 유리하다. 이번에 조사된 곳은 탐라시대에 속하는 유적으로 내부에서 화덕자리가 확인되고 있어 차후 탐라시대 동굴·바위그늘유적의 활용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중문천 일대의 유적 수는 타 지역에 비해 많지 않으나 신석기시대부터 탐라시대로 이어지는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향후 이 일대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중문천변 일대의 선사문화 전개양상과 생활상, 나아가 제주지역 선사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